

2022. 12. 27.(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2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장

구재성

500-7005

기획팀장

강건영

500-7010

담당자

임명경

500-7022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관련 누리집  
(메뉴)

[www.grandpark.seoul.go.kr](http://www.grandpark.seoul.go.kr)

###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는 새해 되세요...

#### ‘2023 서울대공원 점프 프로젝트’

- 서울대공원 만남의광장에서 토끼 조형 작품 23점 전시 (2.26.까지)
-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작가 23인, 꿈, 도약, 희망의 메시지 담아 작품 출품
- 사회관계망(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 2023년 선물로 223명에게 기프티콘 증정

- 토끼띠 해를 맞이하며 서울대공원에서 ‘2023 점프 프로젝트’ 야외 전시회가 개최된다.
  - 전시회는 ’22.12.26.(월)부터 ’23.2.26.(일)까지 두 달간 서울대공원 만남의광장에서 개최된다.
  - 계묘년을 앞두고 창작된 토끼 조형작품 23점이 전시되며,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고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다.
- 23점의 토끼 작품은 각기 다른 형태와 의미를 지니지만, 희망차고 보다 나은 새해를 기원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 있다.
  - 작품은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지도교수 김성복) 작가들이 출품하였다.
  -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23팀의 작가들은 각자의 해석으로 토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더했다.

- 각 작품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 씨앗처럼 퍼지는 원대한 꿈,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약 등 성장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과 이야기한다.
-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서울대공원 입구에는 공공미술 작품 2점이 전시된다. 발걸음을 크게 내딛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작품으로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함께 나아가는 의미를 전한다.
  - 작품은 김래환 작가의 ‘나들이’, 이호준 작가의 ‘접어 만든 사자와 아이’ 2점이다.
  - 작품 ‘나들이’는 서울대공원으로 소풍 가는 설렘의 발걸음을 표현했으며, 종이접기 형식의 철조작품 ‘접어 만든 사자와 아이’는 사자와 아이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동물과의 동행 가치를 전한다.
  - 두 작품은 공원 입구에 전시되어 공원의 표정을 밝게 하고, 더불어 공원 방문객들을 반가이 맞이할 예정이다.
- 토끼조형작품과 공공미술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면, 2023년 선물로 223명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 전시장 앞에서 뛰거나 달려가는 등 도약하는 모습의 사진을 찍은 뒤,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사진과 함께 #2023점프 게시글을 기재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3개 채널에서 진행되며,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총 223명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외식상품권 23명, 커피 기프티콘 200명)
  - 이벤트 기간은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대공원 이이동 관리부장은 “계묘년을 맞이하며 의미있는 전시회를 준비하였다. 작품처럼 2023년은 꺾충꺾충 높이 도약하고, 멀리 나아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전시명: 2023 점프 프로젝트 (JUMP PROJECT)
- 기 간: 2022.12.26.(월) – 2023.2.26.(일)
- 장 소: 서울대공원 만남의광장  
※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내 용: 토끼 조형작품 23점 전시, SNS 인증샷 이벤트 등



포스터



• 2023 점프 프로젝트 참여작가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재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되었다. 총 23팀, 29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시 주제처럼 전시장에 모여 다 함께 점프를 하고 있다.



• With rabbit (김병규 作, 2022)

화려한 옷을 입은 토끼에 형상에 시간을 더했다. 초, 분, 시, 그리고 계절 토끼와 함께하는 시간을 표현했다.



• Dreaming (오누리 作, 2022)

사랑하는 사람을 토끼로 의인화하였고, 포옹하고 토닥이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 체개바라 (빅터조 作, 2022)

혁명가 체개바라의 모습으로 코스프레한 토끼의 모습이다. 그의 모습을 귀엽고 앙증맞은 캐릭터로 변형하여 색다른 재미를 주고자 했다.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어라!” 새로운 세상으로 점프하기 위해 불가능한 꿈을 갖자!



• **강충** (민복기 作, 2022)

2023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토끼의 희망찬 첫 도약을 작품에 담았다. 밝은 달 위로 높고 힘차게 뛰어오르는 토끼를 보고 관람객들이 밝은 희망을 품길 바란다.



• **나만의 속도로 나아간다**  
(송현구 作, 2022)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묵묵히 나의 길을 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2023년 검정 토끼해를 맞이하여, 토끼가 자전거를 타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풍요로운 행운이 온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 **비상** (김지영 作, 2022)

각각의 다른 석재들을 수직으로 쌓고 그 좌대 위로 비상하려는 검정토끼를 형상화하였다.



• **Are you here for this?**  
(김리현 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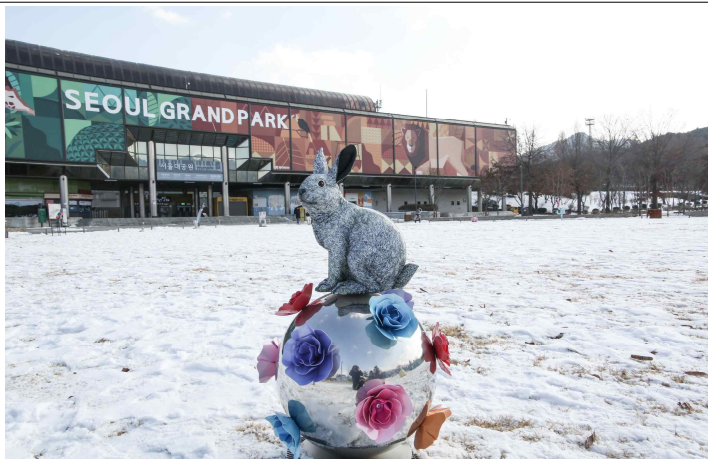
소비 사회 속 인간의 욕망을 토끼에 의인화했다. 욕망의 대상으로 치환된 보석 앞에 토끼 한마리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 낙하 (차정아 作, 2022)

달은 인간에게 이상의 세계와 비슷하다. 떨어진 달 형상에 지친 듯 누워있는 토끼 모습이다.

낙하 이후에도 끝없이 빛나는 달과 지친 힘든 상황에도 위를 바라보는 토끼의 형상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 토끼의 꿈 (김보라 作, 2022)

어찌보면 토끼는 자연 속에서는 약체지만 원대한 꿈을 꾸다. 무엇보다 빠르고 식물을 먹고 씨앗을 퍼뜨리고 대자연을 만든다. 꿈을 가진 생명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뤄낼 것. 그 꿈들은 모여 원대해질 것이다.



• 나들이 (김래환 作, 2022)

서울대공원으로 소풍가듯 설렘을 표현한 작품이다. 공원 입구에 공공미술로 전시되며 큰 걸음처럼 큰 도약을 함께 한다.



• 접어 만든 사자와 아이 (이호준 作, 2022)

종이접기 형식으로 사자와 아이를 만든 작품이다. 한 방향을 응시하며 걷는 모습으로, 동물과 사람의 동행을 전한다.